

市場經濟와 危險管理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장 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여 왔지만, 이제는 인간이 「이니시이티브」를 쥐고 나아가는 자율화시대가 되었다. 또한, 그 동안은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장에서 주어진 「룰」에 따라 자유로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시장도 과거에는 주로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시장으로 넓어졌다.

다음으로는 문화유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전의 가족이나 조식을 우선으로 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의 개인가치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면서 연공서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던 관념이 파괴되고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다는 평생직업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판도 민족중심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시장으로 통합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을 종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위험과 책임이 증대되고,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장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위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으나 대체로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장위험, 특수위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적 위험은 두말할 필요없이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위험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은 실업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그 영향도 사회전체로 파급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시장위험에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금리 위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가격이 변동하여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가격변동위험, 그리고 환율 변동위험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시장위험이 크게 증대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보다 일찍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경험을 보면, 닛산(日産)생명보험회사가 개인연금 계약자에게 고리를 약속하였으나 시장금리가 떨어지 운용수익이 못떠라가지 파산된 예가 있다.

특수위험에는 일반전물이나 상가는 물론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 등의 화재, 화학 전자공장 등의 폭발, 금융기관 도난사고 등에 의한 위험이 이에 속한다. 급속한 기술발전의 결과 건축 및 산업 시설 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병행하지 않는 한 화재위험도는 높

아지고 잠재손실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경우와 금융기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일반사람들에게는 주로 보험에 의한 위험관리 즉, 보험에로의 위험전가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험의 특징은 소수의 위험을 다수가 분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손실을 평균손실 또는 기대손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험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반인의 위험을 관리해 주는 보험산업도 여타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위험을 똑같이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위험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5년 전부터 새로운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즉, 금리위험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능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만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위험을 감소하거나 통제하는 자산부채총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위험 중심의 위험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환율·금리·주가의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등 자산운용 면에서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 등의 변동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시장에서 과거의 흐름과 관계없이 무작위한 움직임(random walk)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금융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손쉽게 분해·전가함으로써 위험회피, 혹은 투

자의 선호에 맞게 리스크 노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파생금융상품 이용 등 다양한 자산운용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에의 과도한 운용은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전문가를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의 겸업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보험, 은행, 증권이 점차 업무장벽을 낮추고 겸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하여 은행과 증권회사가 자회사방식으로 서로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9년부터는 보험업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보험요율의 자유화가 계속 확대되고 외국 손해보험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방제치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위험-고요율, 저위험-저요율 체제를 위한 정확한 언더라이팅 위험분석과 내부경영 효율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개혁 가운데 은행산업의 실패만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직업의식이 철저한 금융경영인 및 실무진에서 대출선의 신용도 분석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벽돌 쌓듯이 꾸준히 노력하고 이를 지키려는 헌신이 미흡하였던 점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를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관리체제를 갖추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李昌圭 / 協會 理事長

◆ 이 글은 '보험조사월보'(98. 6)에 게재된 글을 보험감독원의 양해 하에 전재하는 것입니다.